

세상과 복음을 잇다

일러두기

- 1) 이 책은 삼일교회 70주년 선교 후기 당선작을 엮은 책으로, 글이 실린 순서는 당선 순위와 상관없이 구성했습니다.
- 2) 이 책의 본문 사진은 다양한 삼일교회 선교 현장 모습을 담은 것으로 해당 페이지의 내용 및 인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과 복음을

잇
다

에스칼라 편집

삼일교회 ◆ 선교 ◆ 이야기

삼일출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

이 책은 삼일교회가 70년의 긴 여정을 지나며 담아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교 발자취에 관한 귀중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교회 역사를 나열하지 않고, 지난 70년 동안 삼일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우는 소중한 증언이 됩니다.

책 속에는 1954년 교회 설립 이후,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선교의 비전을 놓지 않았던 우리 성도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국내선교는 물론, 해외선교에 이르기까지 삼일교회가 걸어온 선교 여정은 한국교회 선교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입증합니다.

특별히 인상 깊은 부분은 삼일교회가 단순히 선교사 파송과 후원에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노력입니다. 이는 오늘날 선교적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귀중한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70년의 역사가 말해주듯,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은 몫이 아닌, 모든 성도가 일상에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지이며, 일상이 곧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자취는 과거에 멈추지 않고, 우리 모두를 향한 선교적 부르심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할 때입니다. 70년 선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목사 송태근

차례

들어가는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	8
-----------------------	---

PART 1. 선교적인 교회, 나아가야 할 길

이은영 장년 4진	13
은현재 청장년 5진	27

PART 2. 선교하는 교회, 걸어온 길

양제현 목사	37
김선민 목사	47

PART 3. 삼일교회, 선교를 만나다

오성광 청장년 1진	57
김지산 1청 7진	69
김호영 장년 2진	83
강지혜 장년 1진	93

PART 4. 선교 제안

조아론 목사	105
이광일 목사	117

PART I.

선교적인 교회,
나아가야 할 길

‘이웃이 되는 선교’에서
‘이웃이 되는 삶’으로





할머니와 대화 나누며 깔깔 웃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무심히 지나쳤던 할머니를 유심히 들여다보니 할머니의 삶이 보였고, 할머니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다. 나만의 표현 방식에 의하면 이제 할머니와 나는 서로 '친구'가 된 것이다. 이제는 서로의 이름도 알고, 살아온 삶도 알고, 고민도 나누며,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서로를 기다리는 관계가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웃'일까?

| 선교의 시작, 간사님의 전화 한 통!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2002년 12월 특별새벽기도회(아하 특새) 기간이었다. 그날따라 신나게 늦잠을 자는데, 이영규 간사님(현재 장로님)께서 새벽예배를 마치고 이른 아침에 전화를 주셨다. “여보세요.” 나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비몽사몽 전화를 받았다. “어, 은영아~ 네 이름으로 대만 선교 가등록이 되어있더라!” 어랏? 내가 가등록을 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가등록이 되었다고 말한 후 선교에 데려갈 간사님의 귀여운 전략이로구나! 하하.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의 현장으로 초대한다는 느낌이 온 마음에 물밀듯 밀려왔다. “네, 간사님! 저 같아요!” 하나님이 간사님을 통해 초청하시는 특별한 초대에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삼일교회 고등부를 졸업하고 스무 살 첫 선교를 참여했다. 이후 매년 여름, 겨울마다 꼬박꼬박 선교에 참여했는데, 두려움이 많았던 내가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과 열정으로 섬겨주신 이영규 간사님의 전화한 통 덕분이었다. 그 귀한 마음에 감사로 화답하며 선교적 삶에 첫발을 디뎠다.

| 피난민을 방불케 했던 숙소

그 겨울, 나는 통영선교와 대만선교를 떠났다. 선교의 ‘선’자도 몰랐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지 않았는가. 우리 팀 간사님과 언니, 오빠들을 따르는 용감한 막둥이로 선교에 합류했다. 스무 살 풋내기였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가자!”는 곳으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는 것뿐이었다. 강습회를 한다고 하면 강습회에 가고,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기도회를 하고, 그저 잘 참여하며 선교를 준

비했다.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첫 선교지인 통영으로 출발했다. 긴 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느낀 설렘, 그리고 본부교회 집회의 뜨거움도 참 좋았다. 수십 명이 한방에서 잠자는 여자 숙소의 모습은 파격을 넘어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안락한 여행을 경험한 적 없는 어린 나이였기에 피난민 같은 선교지에서 오히려 즐겁고 신이 났다.

새벽마다 본부교회 마당은 진풍경이 펼쳐졌다. 살을 에는 추위였지만, 교회 마당을 가득 메운 파란 천막 안 커다란 들통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오며 물이 끓었다. 장로님들은 끓인 물을 바가지로 퍼서 대야 안에 부어주시며 선교 대원들이 따뜻한 물로 세수하도록 도와주셨다. 선교 대원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격려하시던 장로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 문둥이 마을에 가지 말라고?

우리 팀이 방문한 연계교회는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마

을 안에 있었다. 첫날인 월요일, 마을을 둘러보며 몇 가구를 방문했는데, 인근 마을에 살던 건강한 할아버지들은 우리 선교팀을 향해 “문둥이 마을에 가지 말라!”고 신신 당부했다. 문둥이 마을에 가지 말라고? 어렵겠지! 마음에 오히려 기대감이 생겼다. 선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허락하신 한 영혼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해 왔기에, 분명 그 마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생겼다.

“똑똑”, 집집마다 노크하며 방문하는 축호전도가 이어졌다. 한 할머니께서 문을 흔쾌히 열어주셔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김재규 할아버지와 만났다. 할아버지는 한센병을 앓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손도 문드러지고, 얼굴도 많이 짓무른 모습이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불쑥 찾아온 어린 손님이 반가우셨는지 지나온 삶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주셨다. 할아버지 말소리가 문드러져서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마음을 기울여 경청했다. 평생을 힘겹게 살아오신 두 분께 나는 감히 한 마디도 건넬 수 없었다. 전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예수님께서 할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할아버지 때문이라는 말뿐이었다. 한참을 대화하고 문밖으로 나서는 길, 할아버지께서

평생 외로우셨을 것 같다는 감정이 쿵 하고 느껴졌다.

| 할아버지의 뭉클한 용기

우리 팀은 본부교회가 아닌 연계교회 현장에서 수요일예배를 드리기로 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수요일을 기다렸다. 월요일에 할아버지를 만나고, 화요일에 또 찾아뵙고, 수요일 오전에 또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드렸다.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교회에서 수요일예배가 있으니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였다.

수요일예배가 시작할 무렵,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할머니께서 김재규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예배당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나도 놀라고, 선교팀도 놀랐지만, 무엇보다 가장 많이 놀란 것은 연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 그렇게 나는 김재규 할아버지 옆에서 예배드리며 손을 꼭 잡고 기도해 드렸는데,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을까? 집 안에 격리되어 살아오신 할아버지는 어떻게 용기를

내셨을까? 그 후 할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뒷이야기를 전해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종종 김재규 할아버지 이름 석 자가 생각났다. 갇힌 세상을 깨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으신 할아버지의 발걸음, 어쩌면 이 발걸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하고 부르짖은 바디매오의 절규처럼 삶을 통째로 걸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곰곰이 할아버지의 절박함을 생각하니 가슴이 묵직해지고, 그 용기를 생각하니 마음이 밝아진다. 할아버지의 몽클한 용기가 오늘까지 나를 격려한다.

|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진 후, 자기를 옹기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물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며 반문하셨다. 여기에서 율법교사와 예수님 둘 다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율법교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객체로서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주체로서

먼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첫 선교를 시작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다. 대학청년부에서 간사와 리더를 하며 선교하는 20대를,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으며 좌충우돌한 30대를 보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나의 일상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선한 이웃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의미와 비근하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본다. 돌아보니 참으로 송구하기만 한 인생이다. 이는 것은 점점 많아지지만 말뿐인 삶, 허울뿐인 삶을 사는 빈수레인 나는 사마리아인보다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에 가깝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을 살아내지 못하던 나는 요즘 가슴을 치고 있다. 그러다 문득 예수님을 흉내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예수님처럼 살기는 어려우니 삶의 작은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라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예수님의 행동을 모방하겠다는 생각은 곧 ‘이웃이 되는 삶을 흉내 내며 살자’로 결단하게 했고, ‘이웃이 되기 위해 기민하게 일상을 살아내자’는 다짐을 이끌었다. 내가 먼저 이웃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가득했다.

| '이웃이 되는 선교'에서 '이웃이 되는 삶'으로

2024년 4월 3일, 전철을 타고 숙대입구역에 내려 9번 출구를 향해 걷는데, 바닥에 앉아 구걸하시는 할머니를 보았다.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 주위에는 청테이프가 덕지 덕지 붙어있는 검정 비닐봉지가 잔뜩 있었다. 바쁜 저녁 시간이라 켄겔음으로 휙 스쳐 지나갔는데, 문득 “이웃이 되는 삶”이 떠올라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이웃이 되려면 내 본성에서 돌이켜야겠지? 팡! 누군가 내 머리를 망치로 두드린 것 같았다. 나는 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 할머니께로 다가갔다. 그리고 가방에 있던 샌드위치를 건네며 할머니 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70대이신데 목소리도 정정하고, 눈빛도 반짝이셨다. 웃음이 많으신 할머니는 하루 종일 여러 전철역에서 구걸하신 후 저녁에는 쪽방에서 주무신다고 하셨다.

그 후 나는 종종 할머니와 약속을 하고 만났다. 할머니께서 좋아하는 고구마를 따끈하게 구워드리고, 돈보기를 사다 드리고, 편지도 써드리고,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드렸다. 할머니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지신 이유를 여쭙보았고, 왜 신발을 안 신고 다니시는지도 물어보았

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할머니는 참으로 총명하고 유쾌하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였다.

할머니와 대화 나누며 깔깔 웃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무심히 지나쳤던 할머니를 유심히 들여다보니 할머니의 삶이 보였고, 할머니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다. 나만의 표현 방식에 의하면 이제 할머니와 나는 서로 친구가 된 것이다. 이제는 서로의 이름도 알고, 살아온 삶도 알고, 고민도 나누며,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서로를 기다리는 관계가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웃일까?

내가 할머니를 섬기려 했는데, 놀랍게도 할머니께서는 도리어 나를 섬겨주시며 내게 용돈과 음식까지 나누어 주셨다.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시며 만 원짜리 두 장을 휴지에 싸서 내 손에 꼭 쥐여주시고, 맛있는 가래떡과 어묵 등 음식을 나누어 먹자며 주셨다. 몇 차례 손사래를 치며 고사하다가 완강하게 주시는 통에 결국 받아왔는데, 평생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묵직하고 먹먹했다. 할머니 곁에 있으니 그동안 이웃으로 살지 못했던 내 가벼운 손과 허약한 삶이 참으로 부끄러웠다.

돌아보면 할머니는 수년간 숙대입구역에 계셨다. 근데 근데 찢어진 검정 옷을 입고, 신발을 신지 않고, 등이 새우처럼 굽어 검은 봉지를 손에 쥔 채 바닥을 밟고 가시던 할머니. 등이 심하게 굽어 바닥만 내려다보고 가시던 할머니를 스쳐 가는 눈으로 본 기억이 이제야 떠오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할머니의 이웃이 되게 하시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걸 보면, 나는 선한 이웃이 되기에는 한참 멀었다. 이제부터라도 더욱 이웃으로서 사는 삶을 흉내 내보려 한다.

| 걸어온 70년, 걸어갈 70년

우리 교회 3대 비전은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이다. 나는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라는 말을 보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진다. 70년간 사랑의 길을 걸어온 우리 교회는 어느덧 칠순을 맞이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이웃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우리 교회가 소망 잃은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주는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세상의 이웃이 되는 성도의 삶이 눈물겹게 아름답다. 만약 "누가 강

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신다면, “우리 삼일교회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크게 외치고 싶다.

선교와 함께 지난 70년을 뚜벅뚜벅 걸어온 삼일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갈 70년은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선교적 삶으로 세상의 이웃이 되는 놀라운 일이 더욱 많아지길 소망한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에 동참하며 우리 이웃들이 더 행복해질 날을 기대한다. 우리 이웃을 얼싸안은 채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을 꿈꾼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의 선교를, 우리들의 선교적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할렐루야!

나의 수도권 일지



은현재 청장년 5진



겨울 선교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여름이 왔다. 팀 개편 전 한 번만 더 이 사람들과 선교를 다녀오자 했던 마음은 몇 번의 개편이 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9년 동안 이어졌다. 나는 유년기부터 무엇하나 꾸준히 하지 못했던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더블레싱교회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고백 말고는 이 사역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말로 상황과 여건이 그 길로만 걷게 했다.

우리 집에는 지구별에 도착한 지 이제 막 130일이 지난 꼬마 사람이 있다. 작년 여름 선교부터 함께하기는 했지만, 뱃속에서 스스로 잘 먹고 잘 자라던 아기를 데려가는 것과 하루에 맘마를 다섯 번 먹여주고 기저귀를 대여섯 번 갈아줘야 하는 아기를 선교지에 데려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다.

수도권 선교 날짜가 다가올수록 걱정과 근심은 깊어갔고, 세 가지 정도 대안을 세웠을 무렵 연계교회 목사님께 전화가 걸려왔다. 일단 내 주특기인 태연한 척으로 걱정과 근심을 잘 숨긴 채 목사님께 안부를 물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응 잘 지내지. 아기는 잘 크고? 어떻게 이번 선교는 데리고 올 수 있나?”

혹 들어온 목사님의 선빵(?)에 스프룩 자연스레 나의 고민을 실토했다.

“네 목사님, 아기는 잘 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애를 데리고 가는 게 좀 걱정이긴 해요. 가는 건 괜찮은데 아기 돌보느라 사역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아이고 그래, 너무 힘들면 이번엔 쉬어도 돼.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성경학교를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의논 차 전화한 거야.”

맙소사, 목사님의 이야기는 솔깃했다. 더블레싱교회 청년들이 직접 준비하는 여름성경학교라니. 방금까지 엄습하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설렘이 자리 잡았다. ‘두근두근.’

“목사님, 저희 아기 데리고 갈게요. 저희가 주축이 되진 못하지만, 옆에서 보조 선생님이로 돕고 싶어요!”

“허허 그래. 그럼, 청년들이랑 소통해서 준비해요.”

목사님과 짧은 통화를 마친 후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

을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자연스레 선교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때는 바야흐로 2015년 겨울이었다. 지금보다 무려 9살이나 어린 시절이었다. 2015년 만난 더블레싱교회는 작은 상가 2층에 본당과 주방이 작게 마련된 곳이었다. 작은 교회였지만 목사님은 열정이 넘치고 사모님도 사랑이 많으셨다. 교회학교 학생이 20명 남짓 되었고, 중고등부도 1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다. 목사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는 삼일교회 수도권 선교랑 같이 성장했어. 지금 중고등부 애들이 초등학생일 때 삼일교회 팀 노방전도로 우리 교회에 왔잖아.”

알고 봤더니, 우리와 연계되기 전에 더블레싱교회와 7년간 꾸준히 연계해 온 선배 성도님이 계셨다. 그분이 선교팀에서 결혼을 하고 얼마 전 아이를 낳아 계속 성경학교를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팀과 새롭게 연결된 것이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우와! 7년간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기시다니. 너무 대단

하시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저는 간사님의 부탁으로 그냥 한번 어쩌다 팀장으로 온 건데…’

부담스러운 마음은 숨긴 채 일단 정신없이 선교를 맞이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지하철을 타고 4호선 끝자락 안산 더블레싱교회로 모였다. 졸린 눈을 비비며 선교대원과 교회를 꾸몄고, 다음 날 있을 성경학교를 준비했다. 늦은 저녁 형제들은 교회 본당에서, 자매들은 목사님 사택 거실에 모여 잠들었다.

토요일 오전 노방전도를 나가 학교 주변을 맴돌며 성경학교를 홍보했고, 그날 교회를 오게 된 몇몇 아이와 기존 교회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왁자지껄 성경학교를 시작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았지만, 어르고 달래가며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길 기도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마치고 한숨 돌릴 틈 없이 바로 중고등부 아이들과 저녁을 같이 먹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보내고 나서야 선교팀은 모여 도란도란 하루 사역을 나눌 수 있었고, 깊은 밤 울

고 웃었다. 그 시절 더블레싱교회도 좋았고, 풋풋했던 우리 선교팀은 더 좋았다.

겨울 선교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여름이 왔다. 팀 개편 전 한 번만 더 이 사람들과 선교를 다녀오자 했던 마음은 몇 번의 개편이 되고서도 멈추지 않았다.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9년 동안 이어졌다.

나는 유년기부터 무엇하나 꾸준히 하지 못했던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더블레싱교회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고백 말고는 이 사역을 설명할 수 없다. 정말로 상황과 여건이 그 길로만 걷게 했다.

그간 내 일신상의 변화만큼이나 더블레싱교회도 큰 변화를 맞았다.

교회는 상가건물에서 2층짜리 단독 건물로 이사했고, 말 안 듣던 초등학생은 굵은 목소리로 나에게 안부를 먼저 묻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선교팀의 전도를 통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여고생은 어엿한 청년이 되어 더블레싱교회 자체 주관 성경학교를 총괄했다.

처음으로 함께 더블레싱교회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며 성경학교를 준비했다. 꼼꼼한 더블레싱교회 청년들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직접 만나 준비모임을 가지진 못했지만, 일정표와 율동 동영상을 공유하며 하나씩 맞춰나갔다. 3일간의 성경학교 프로그램은 짜임새 있었고, 그것을 인도한 청년은 강단이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그간의 노고가 보였고, 진심을 담아 그 청년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줬다.

주일날 설교 중 목사님은 ‘성도가 곧 교회이고, 교회는 한자리에 고여있지 말고 움직이며 살아 숨 쉬어야 한다.’고 하셨다.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깊이 공감되었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처음 연계된 선배 성도에게서 나에게로, 또 나에게서 그 청년에게로 흘러가며 살아 숨 쉬는 더블레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는다.

솔직히 청년 시절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못하는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 망설였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은 아기 띠를 매며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 부르신 곳에서 부지런히 예배하자!’

“아기 클 때까지 계속 와요. 너무 보기 좋아요.”

권사님의 환한 웃음처럼 따뜻한 말씀이 더욱 뜨겁게 박히는 선교였다.

PART 2.

선교하는 교회,
걸어온 길

삼일교회에게 선교란



양제헌 목사



선교에 참여한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교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몸으로 부대끼며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피부로 배웁니다. 복음을 현장감 있게 경험합니다. 선교지에서 새벽과 저녁마다 예배할 때 말씀을 갈망하며 흡수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당장 내일 또 낯선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교 앞에서 만난 어린이의 뜰뜰망망한 눈망울이, 경로당에서 꼭 잡아드린 할머니의 주름진 두 손이 아른거리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 때문에 마음이 절실해지는 순간, 나 같은 고집불통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삼일교회는 선교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정체성은 삼일교회의 심장입니다. 삼일교회에게 선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 복음의 현장성

제 첫 선교는 겨울 목포선교입니다. 당시에 저는 교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일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청년이었습니다. 간사님이 “선교 가세요!” 해서 별생각 없이 순종했습니다.

연계교회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께서 2인 1조로 짝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지침은 단 두 개였습니다.

첫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라.

둘째, 안에서 누구냐고 물으면,

“서울에서 온 청년들인데요. 물 좀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라.

이게 전부였어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라.”

처음 낯선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저는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벨을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빈 집이 많았습니다. 부끄럽지만 내심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간혹 문을 열어주는 이상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거의 포기할 때쯤, 한 아주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 좀 달라”는 맥락 없는 요구에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 자기도 결혼 전에는 교회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더듬기

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영접 기도까지 따라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당신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겠어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저의 선교 수행 점수는 F 학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F 학점 학생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이 경험으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선교를 마친 후에는, 공동체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에 참여한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교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몸으로 부대끼며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피부로 배웁니다. 복음을 현장감 있게 경험합니다. 선교지에서 새벽과 저녁마다 예배할 때 말씀을 갈망하며 흡수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당장 내일 또 낯선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교 앞에서 만난 어린이의 뜰망뜰망한 눈망울이, 경로당에서 꼭 잡아드린 할머니의 주름진 두 손이 아른거리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 때문에 마음이 절실해지는 순간, 나 같은 고집불통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선교의 자리에 있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복음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복음의 현장성은 잠든 성도를 깨웁니다.

| 빛진 마음과 꾸준한 섬김

선교를 왜 할까요? 선교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입니다. 교회는 은혜에 빛진 공동체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지만 갚을 수 없는 공화를 받았습다.

삼일교회는 또 다른 공화를 입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지역 교회에 은혜의 빛을 쬐습니다. 삼일교회에는 수많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서울 토박이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각 지역 교회에서 먹고 자란 청년들이 대학 진학과 취직 등의 이유로 서울에 와서 삼일교회로 출석합니다. 모두 사랑으로 키워주신 귀한 청년들입니다.

선교로 각 지역 교회를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동쪽과 남쪽으로 최대한 먼 지역까지 갑니다. 여름에는 제주, 영동, 영덕과 울진 지역의 연계교회를 섬깁니다. 겨울에는 통영, 목포, 장흥 지역의 연계교회를 섬깁니다. 한 번 관계를 맺으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지속해서 섬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선교지에서 만난 어린이가 자라 삼일교회의 청년이 되어 모^부교회로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삼일교회 70주년을 맞은 이번 여름 영덕울진선교의 준비위원장이 영덕에서 자란 40기 청년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문곡교회는 농어촌 선교 연계교회입니다. 그 교회 학생이 올해 대학에 진학하여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자신이 속한 팀원들과 함께 농어촌선교에 참여하여 모교회의 여름성경학교를 섬겼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꾸준히 선교에 참여한 간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지 묻자,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향에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며, ‘이분도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겠지’라는 생각에 선교를 빠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사님의 고향이 울진입니다. 어느 여름, 아버지께서 삼일교회 선교팀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선교는 상생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전부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받았습니다.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 다양성과 공동체성

삼일교회 국내 선교위원회에는 총 16개 부서가 존재합니다. 크게는 시즌 선교와 상시 선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즌 선교는 여름과 겨울방학 시즌에, 상시 선교는 1년 내내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교회섬김부'에서는 수도권 연계교회를 매주 또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섬깁니다. '어깨동무'는 미자립교회를 정기적으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합니다. 캠퍼스와 학원 선교는 대학교와 기숙 고등학교로 학생들을 찾아가 만납니다. 의료, 북한, 매월군선교도 정기적으로 노동자, 새터민, 군인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선교는 시즌 선교입니다. 올해 겨울에는 2,375명의 성도가 148개 교회를 섬겼고, 여름에는 3,611명의 성도가 223개 교회를 섬겼습니

삼일교회 국내 선교(총 16개 부서)			
시존 선교	팀(진) 선교	여름	제주, 서귀포, 영동, 영덕, 울진
		겨울	통영, 목포, 장흥
	모집 선교		농어촌, 수도권, GOP 군선교
상시 선교		캠퍼스, 학원, 북한, 어깨동무, 이웃교회섬김, 의료, 매월 군선교	

다. 대학청년부를 청년 1, 2, 3부로 조직 개편하면서 목양 부서마다 하나의 선교지를 책임 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집회도 각 목양 구성원에게 맞게 준비합니다. 과거에 장년은 청년팀에 한두 명씩 함께하는 방식으로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이나 장년만의 팀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을 앞세운 청장년과 장년 팀이 어르신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장년의 경우 어르신들에게 훨씬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장년 성도의 선교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성도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눈에 띄는 특징은 선교에 대한 자발성 증가입니다. 올해 겨울과 여름의 경우, 동원할 겨를도 없이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로서 하나

님의 아름다움에 심취되고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합니다.
선교에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달라지고 공동체성이 함
양됩니다. 선교는 공동체에 역동성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적 추진력입니다.

자녀에게 흘러가는
선교의 은혜



김선민 목사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선교에 참여했을 때 선교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선교지에서 아빠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본선교는 교회를 속소로 사용해서 남자들은 예배당에서, 여자들은 건너편 사무실에서 숙박했다. 집에서는 잘 하지 않았던 9살 아들을 씻기고 입히고 재우는 일을 5박 6일간 온전히 담당해야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뭘 하든 어색한 아빠 앞에서 아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싶기도 하다. 의외로 아이들은 일본선교에 잘 적응했다. 서로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일본 친구를 사귀고, 함께 신이 나서 전도지를 돌리기도 했다. '이게 되네' 싶은 일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며 가족과 함께 참가하는 선교의 즐거움을 서서히 알아 갔다.

삼일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로 사역한 지 햇수로 벌써 8년이 되었다. 2017년 4월, 처음 부임할 당시에는 삼일교회를 그저 단기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정도로 알고 있었다. 삼일교회에는 청년이 많고 교회가 선교에 열심이라는 사실이 외부에도 알려져 있었다. 청년부 리더 모임에서 첫 부임 인사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선교 담당 목사이기에 모든 선교에 참여하고 선교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다고 인사했다. 당시 그 인사말에 놀라던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 놀람의 의미를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 교회가 여름과 겨울에 그렇게 많은 선교지를 가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다.

매해 여름과 겨울, 두 달 가까이 집을 비우고 선교에 참여했다. 많이 보고 느끼며 배울 수 있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우리 교회의 선교를 단순히 단기 선교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선교지에서 만난 대다수의 선교 대원은 자신이 섬기는 연계교회를 수년에 걸쳐 반복해서 찾았다. 한두 번 경험 삼아 참여한 선교가 아니라 5년, 10년 넘게 같은 지역과 교회를 찾아가 현지 성도와 관계 맺고 그들과 함께했다. 일본선교에서 만난 통역 담당 자매는 일본선교에 처음 참여한 스무 살 무렵 일본어를 하나도 하지 못했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선교하며 언어를 배웠고 이제는 설교 통역이 가능할 정도의 일본어를 구사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매년 같은 곳으로 올 수 있을까? 무엇이 이 청년들의 시간을 이토록 헌신하게 했을까? 10년 넘게 자기 삶을 헌신하는 선교를 단순히 단기 선교라고 구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삼일교회 선교를 더 알고 싶었다. 그저 선교지를 많이 돌아보는 것을 넘어 나도 꾸준히 한 지역을 섬기며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다. 그래서 2019년 겨울부터 아내, 그리고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온가족이 일본선교에 등록하고, 오키나와 센타교회를 방문했다.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선교에 참여했을 때 선교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선교지에서 아빠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본선교는 회를 숙소로 사용해서 남자들은 예배당에서, 여자들은 건너편 사무실에서 숙박했다. 집에서는 잘 하지 않았던 9살 아들을 씻기고 입히고 재우는 일을 5박 6일간 온전히 담당해야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뭘 하든 어색한 아빠 앞에서 아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싶기도 하다. 의외로 아이들은 일본선교에 잘 적응했다. 서로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일본 친구를 사귀고, 함께 신이 나서 전도지를 돌리기도 했다. ‘이게 되네’ 싶은 일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며 가족과 함께 참가하는 선교의 즐거움을 서서히 알아 갔다.

일본선교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물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오키나와에 갈 수 없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도 센타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 연계교회 성도와 우리의 깊은 신뢰 관계는 내가 삼일교회 선교에 처음 참여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이다.

우리 가족도 어느덧 연계교회와 신뢰를 쌓으며 한 곳을 꾸준히 섬기는 기쁨을 알아갔다. 작년 여름, 코로나

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선교가 재개되었을 때 다들 선교에 다시 참여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일본선교 출발을 앞둔 시점에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6호 태풍 ‘카눈’이 오키나와를 향하고 있었다. 설마 하며 마음을 줄이고 기도했지만 결국 태풍 때문에 오키나와행 모든 항공편이 결항했다. 준비팀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체 항공편을 구할 수 있었지만, 태풍 피해로 인해 현지 성도들이 예배당을 임시거처로 사용해야 해서 센타교회 팀은 여름 선교를 갈 수 없었다. 21개 일본 선교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선교에 못 가게 되었을 때, 지금껏 당연하게 생각했던 선교가 전혀 당연하지 않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매해 이렇게 많은 선교팀이 사고 없이 선교지를 방문하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B관 4층에서 마지막 모임을 하며 아쉬운 마음에 다른 선교팀원들도 우리 아이들도 눈물을 보였다. 어느덧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교를 못 간다는 상황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만큼 중요한 일이 돼버렸다. 문득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다. 한번은 아이들에게 선교 가는 게 왜 좋은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 해외를 가서 좋은 것인지,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서 좋은 것인지, 무엇 때문에 선교에 참여하느냐고 물었다. 아이들의 답변은 의외로 단순했

다. 그냥 선교 가는 게 좋다고 한다. 자기들도 선교 대원으로 참여하는 게 좋고, 여행보다 선교 가는 게 재미있다고 한다. 사실 아이들의 대답에 반신반의했다. 진짜 진지하게 선교에 참여해서 좋은지, 일주일간 학원을 쉬고 해외에 가서 좋은지 여전히 아리송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 선교는 목회자로서도 아빠로서도 많은 은혜와 놀라움을 경험한 선교다. 우리 팀이 가는 오키나와 센타교회는 굉장히 가족적인 교회이다. 백여 명가량의 성도 가운데 아이들이 절반 가까이 되고, 우리가 선교를 가 있는 기간 수시로 아이들이 찾아오고 우리와 함께 교회에서 자고 가기도 한다. 선교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밤, 함께 기도 하고 나누려고 선교팀이 모였다. 나눔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힘들지 싶어 어른들만 모이고 아이들은 예배당에서 일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했다. 아이들을 위한 배려라고 했지만, 사실은 진지한 나눔에 아이들이 방해될까 봐 우려한 조치기도 했다. 두 시간가량 눈물의 나눔과 기도를 마치고 밤 10시쯤 예배당에 올라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당연히 카드 게임이나 하면서 놀고 있을 줄 알았던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둥글게 모여 앉아 기타를 치며 찬양하고 있었다. 캠프파이어 감성을 낸다며 전체 조명을

끄고 작은 등 하나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이 아이들에게 선교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구나!' 그저 놀러 오는 자리, 여행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드디어 믿어졌다.

그간 목회자임에도 중학생 자녀의 신앙에 대해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아이들이 그저 부모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염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꾸준히 선교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함께한 것은 비단 성인 선교대원만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하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셨다.

최근 많이 듣고 묵상하는 찬양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있다.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잇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나는 우리 교회 선교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선교팀과 현지의 연계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 가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순히 신앙 좋은 성도들이나 어른들 뿐 아니라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어린아이와 연약한 자들에게서도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한 선교지, 한 연계교회를 오랜 기간 섬기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선교지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드린 모든 시간은 헌신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의 고백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삼일교회를 사용하시며 그분과 우리가 신실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PART 3.

삼일교회,
선교를 만나다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





부모의 신앙에 동참한 어린 시절의 시간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흘러 자녀를 갖고, 자신의 신앙에 아이를 초대하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닫기도 한다. 분명 우리 아이도 기억할 것이다. 경로당에서 낯선 할머니 품에 안긴 그 순간, 아빠와 씨름하며 자지러지게 울던 시간, 선교지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인상들을 말이다. 30년이 흘러 내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아이가 또 자식을 갖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씨앗을 계속 심을 것이다. 엄마 손을 부여잡고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아이가 자라, 두 돌배기 아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간 것처럼, 부모와 함께한 신앙의 기억들은 다음 세대를 타고 계속 살아날 것이다.

은하수를 품은 까만 새벽하늘 아래,
집으로 향하는 길.
겨울바람에 실려 온 기도 소리와
잡은 손으로 전해지는 엄마의 온기.
닿을 수 없는 생각으로 어렴풋이
가늠해 본 주님의 은혜.

| 모텔에서 자요

귀를 의심했다. 선교지에 가서 모텔에서 잘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일

어날법한 별별 민망한 상황도 머릿속에 떠올랐다. 몇 년 전 출장지에서 묵었던 어느 모텔의 쿼퀴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졌다.

‘우리 아기, 이제 막 두 돌 지났는데, 제대로 잠이나 잘 수 있을까? 아이가 밤새 울고 다음 날 사역까지 망쳐버리면? 아이가 울면 아내도 울고 그러면 나도 울고…’

슬며시 고개를 든 모난 걱정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이미 내버린 선교비가 살짝 원망스러워졌다. 약간의 후회도 함께 찾아왔다. 바짝 부풀었던 마음은 오래된 풍선처럼 점차 쪼그라들었다. 사역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래서 마음 맡이 황폐해진 까닭이라고 그럴듯한 핑계를 찾아냈다.

결혼 직후 아내와 난, 함께 섬길 교회를 찾기로 결심했다. 인생의 변곡점에 선 우리는 이제 평생을 함께할 신앙 공동체를 찾기 원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부부는 예상치를 훌쩍 넘는 기간,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도 부유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개시한 뒤로는,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던 수요 가정 예배도 무너졌다. 상황이 안 좋은 건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 육아를 시작하면 ‘10년 동안은 신

양의 암흑기'라는 우스갯소리에 조금씩 힘이 실렸다.

그런 시기를 지나 어렵게 찾은 공동체가 삼일교회였다.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6개월이 지나자, 목사님 설교에서 '선교적 교회'의 메시지가 조금씩 들렸다. 그와 동시에 미취학 아동을 둔 젊은 부모들이 20대 청년처럼 활기차게 사역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축 처진 어깨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 부부, 정상궤도를 향한 도약을 꿈꾸며 국내선교를 신청해 버렸다. 아이와 함께하는 선교는 해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기에 짐작할 수도 없었다. 분명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각오했지만,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아이를 모텔에서 재운다는 건... 결정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큰 난관이었다.

|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선교 둘째 날 밤,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울었다. 사역을 마치고 모텔방으로 돌아오니 감당하기 힘든 낯선 기분이 되살아난 듯했다. 애착이 듬뿍 묻은 고양이 인형도 소용 없었다. 아내와 난 무작정 울어대는 아이를 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울음이 남김없이 다 소진되어야 상

황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 너도 힘들겠지. 오죽하겠나! 나를 원망해라, 나를!’ 이미 굳어버린 아내의 얼굴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문이라도 열어서 방 안에 가득 찬 울음소리를 빼내고 싶어졌지만, 9층에 묶는 모든 선교대원을 깨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날 밤 아이는 마지막 울음까지 뱉고 나서야 간신히 잠들었다. 다음날까지 컨디션 난조를 보인 아이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성경 학교 사역은 결국, 육아 섬김으로 대체되고 말았다. 사실 어찌면 아내와 내가 선교 일정을 빠짐없이 소화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 폐 끼칠 수밖에 없죠, 폐 끼치면서 가는 거죠

준비 모임 때 처음 만난 이 집사님은 국내 선교를 간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면서도 선교의 끈을 놓지 않았고, 이유식을 얼러가며 기저귀를 챙겨든 채 선교 현장을 다녔다고 했다. 그렇게 가면 사역은 커녕 그냥 애만 보는 날도 부지기수였다고. 그래도 그냥 가는 게 선교라고... 아이가 어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우리 부부에게 집사님은 그렇게 건조한 위로를

건넸다. 첫 준비 모임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집사님의 말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다. 두 마음이 공존했다. ‘그래, 아이들은 폐를 끼칠 수밖에 없지. 그래도 사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귀한 게 아닌가!’, ‘그래도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아이가 너무 어린 부모들은 그냥 현금으로만 보내는 선교가 맞지 않을까?’ 무엇이 맞는지 알기 어려웠다.

나는 저녁 집회에 두 번밖에 참석하지 못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못 견뎌 하는 아이를 아내와 내가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맡아야 했다. 그건 마치 전날 받은 은혜로 두 시간을 버티는 임무와 같았다. 아이와 단둘이 남은 어느 날 저녁, 김과 밥으로 옥여넣은 식사가 소화가 채 되기도 전 아이는 칭얼댔다. 집회는 시작했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예배당 문밖에서 나는 한참이나 아이를 달랬다. 20분쯤 지났을까? 아이의 눈은 여전히 툭툭떨었다. 예배당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마다, 아이의 타고난 목청이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갈 것만 같았다. 긴장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하, 안돼! 진짜 민폐다, 민폐… 예배에는 방해하지 말자.’ 괴로운 나의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난히 높은 천장에 부딪힌 아이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커졌다.

선교를 준비하며 팀원들의 어린 자녀들이 가장 염려가 됐다. 노인 사역보다 겨울성경학교에 비중을 둔 일정이었고, 천방지축으로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는 기쁨이겠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냥 ‘폐 끼치는 존재’일 수 있으니까. 대부분 유치등부에 속하는 우리 아이들이 연계교회 아이들과 섞여서 일정을 소화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안 요소도 무시할 수 없었다. 힘들어진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면, 말씀에 집중해야 할 공과 시간은 산산조각이 나버릴 위험이 충분했다. 특히나 가장 큰 폭탄은 바로 우리팀 최연소 선교 대원, 내 아이였다.

며칠간의 선교 일정을 소화하며 은혜로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선교’라는 낯선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부족했다. 아이 때문에 시달린 시간이 너무 강렬했다.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부모들이 사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참 곤란한 일이다. 아이 시중이나 들어야 하는 선교가, 과연 어떤 선교란 말인가! 4박 5일의 선교는 나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 채 끝났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고향에 들었다. 선교 전 아내와

내가 계획한 일이다. 고향 집은 서울 가는 길의 딱 중간 위치에 있어 긴 이동시간을 반으로 나누기에 알맞았고, 손주까지 데리고 가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생색내기도 적당했다. 하지만 이제 막 두 돌 지난 아이를 데리고 선교를 다녀오는 길이라고 말할 계획은 없었다. 걱정이 많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멘소리를 들을 게 분명했다. 어디 여행을 갔다 왔다고 말하면 어떨까? 선교 일정보다 하루 먼저 도착해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니까 100% 거짓말은 아니었다.

| 선교! 다녀와떠요!!

한참 말이 늘고 있던 아이를 너무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다. 어디 갔냐는 어머니의 안부 인사에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아이는 시원하게 비밀을 밝혔다. 아내와 눈이 마주치고, 나는 바로 결눈질로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내 예상과는 다르게 잔잔한 감탄이 이어졌다. 대견하다고 연신 머리를 쓰다듬는 아버지에게 선교지에서 찍은 사진을 슬그머니 들이밀었다. 아이는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꿀을 하나 건네고 있었다. 가만히 사진을 보고 있으니

사역 첫날 방문했던 작은 경로당에서 사역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워낙 낮을 가리는 아이여서 '올면 바로 들고나오기'라는 원칙을 세웠지만, 경로당에 들어선 아이는 어느 때보다도 침착했다. 울동하는 형과 누나들 옆에서 멍뚱멍뚱 서 있다카도, 꿀을 하나씩 나눠 드리라는 어른들의 재촉에는 막힘없이 움직였다. 자기에게 "예쁘다, 예쁘다."며 감탄하는 멋쟁이 할머니의 품에 폭안겨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래 그때 참 대단했지!' 사실 선교를 가기 전 아내와 나는 아이에게 미리 많은 것을 일러주었다. "우리 선교가는 거야. 거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할 거야, 잘할 수 있지?" 비록 아이가 우리가 해준 말을 다 기억하는지 알 길은 없었지만, 경로당에서의 작은 변화는 분명 그런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부부는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경로당 사진에 관해 한참을 이야기했다.

| 일상으로 복귀한 뒤,

나는 천천히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다

부모님을 뵈러 갔던 날, 고향교회로 향하는 언덕길을 보며 떠오른 유년 시절의 기억이 하나 있었다. 아니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던 까만 새벽하늘, 교육관

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와 어렴풋하게 가늠해 봤던 하나님이라는 존재.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 전이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분명하게 기억했다. 무작정 엄마 손을 잡고 참석했던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부모님과 함께한 많은 기억 속에서 자기 영역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부모의 신앙에 동참한 어린 시절의 시간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흘러 자녀를 갖고, 자신의 신앙에 아이를 초대하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닫기도 한다. 분명 우리 아이도 기억할 것이다. 경로당에서 낫선 할머니 품에 안긴 그 순간, 아빠와 씨름하며 자지러지게 울던 시간, 선교지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인상들을 말이다. 30년이 흘러 내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아이가 또 자식을 갖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씨앗을 계속 심을 것이다. 엄마 손을 부여잡고 새벽기도에 참석했던 아이가 자라, 두 돌배기 아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간 것처럼, 부모와 함께한 신앙의 기억들은 다음 세대를 타고 계속 살아날 것이다.

선교의 사명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서로 상관없는, 별개가 아니다. 아이와 함께 선교하며, 우리는 그곳의 영혼을 위해 사역하

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신앙을 심으신다. 그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뽀 끼치는 아이들도 기쁘게 선교지로 향할 수 있다. 선교를 목숨같이 여기 성도들과 아이들의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 안에서 풍족하게 열매 맺는다. 선교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다.

하나님의 선교가 주는 풍성함,
그리고 비전





중동난민선교를 준비하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 '난민'이라는 것입니다. 난민(難民)은 한자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이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난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어려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 주시고 그 과정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 들어가며

2023년 7월, 2024년 2월에 진행된 1617차 중동난민선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누린 놀라운 은혜를 저의 언어로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녀온 두 차례의 중동난민선교는 그리스에서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이 긴 여정의 경유지로 그리스 난민촌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교회 중동난민선교팀은 30년 넘게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양용태, 김미영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난민들을 만나며 그들과 깊이 사귀었습니다. 하

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이슬람교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을 제 평생의 비전으로 품었습니다.

먼저 16차 중동난민선교는 제 인생 첫 번째 선교였습니다. 당시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3개월 차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불타오름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어느 하나 자신감 없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던 큰 슬럼프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후보에서 그리스로 가는 중동난민선교 모집공고를 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국제 안보와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학부 전공 덕분에 서양 정치철학의 출발점인 그리스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은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꾸준히 갔던 사역지였기에 선교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선교의 '선' 자도 모르는 제가 처음 그리스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황홀함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자연환경은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눈 부신 햇살, 오렌지와 올리브의 조화, 뭉게구름 밑의 광활한 산과 들판, 에메랄드빛 지중해와 그 향기…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집’은 그리스 구무라다 산골짜기에 있는 농장입니다. 이 아름답고 넓은 농장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캠핑카를 개조해서 다양한 시설을 갖춰 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임시거처지만 완공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팀은 우선 농장 곳곳의 보수 작업을 도와드린 후 난민 가족들과 2박 3일의 짧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총 20명 내외였고, 대부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30대, 40대 여성분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 혼자 오신 중년 남성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어와 다리어를 사용하지만, 약간의 영어가 가능했습니다. 9살 정도의 어린이들은 영어에 능숙했고, 특히 5개 국어를 구사하는 Nooshin이라는 든든한 고등학생 소녀의 통역 덕분에 우려와 달리 소통의 어려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미술, 요리, 체육 활동으로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으며 세족식, 성찬식, 그리고

촛불과 함께한 뜨거운 예배로 우리는 점차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에 그들에게 '선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왜 그곳으로 보냄받았는지를 Mehrana라는 9세 소녀를 만나게 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살면서 어린아이들을 귀여워해 본 적이 없었던 제가 Mehrana를 비롯한 Edrina, Rohan, Sara 등 난민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제게 부여준 사랑이 저의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은혜의 순간이 있었지만 제가 예수님 사랑이 진리라고 깨달은 순간은 바로 그때 Mehrana를 만났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새가족교육 때 받은 <비전과 삶>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삼일교회 제자훈련원에서 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3대 비전 중 두 번째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부분을 읽으면서 미래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알 순 없지만 강력한 사명감이 생겼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교회학교 유치부를 섬겼습

니다. 현재 유치B 6세부 체리반 담임교사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흘러보내려 하지만, 도리어 아이들이 주는 사랑이 더 큼을 깨닫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가는 은혜의 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16차 중동난민선교 이후 꿈 같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제 앞에는 여전히 팍팍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된 난민 친구들과 한국에서도 종종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믿음의 추억을 간직해나가는 부분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 '주님의 집' 수련회에서 저희는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뛰고 웃고 울었습니다. 서로의 가정사에서 시작해 험난한 국경을 넘는 탈출 과정을 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온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공감할 수조차 없을 참담한 이야기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기반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등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스에서 누린 은혜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돌이켜보면 우연은 단 하나도 없지만) 선배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통일법제’라는 분야를 접하면서 제가 늘 꿈꿔왔던 남북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앞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 만남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법제 분야 법조인이야말로 이 땅 한반도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 정치 억압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북한 주민들,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북한이탈 주민들을 위해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진로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한반도의 평화’라는 비전은 ‘주님의 집’에서 맛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며, 북한 땅과 남한 땅 구석구석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자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또 다른 70년을 향해 나아갈 삼일교회와 함께 저 또한 세상의 이웃이 되고자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믿

습니다.

| 선교하는 교회

6개월이 흐르고 17차 중동난민선교가 다가올 무렵 저는 시험 준비 때문에 이번 선교는 함께하지 못한다고 난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교 일정이 제 일정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저는 다시 한번 그리스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 적응도 잘했고 여러 측면에서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한 채 딱히 큰 기대감 없이 선교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계획을 갖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렸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그리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동시에 저의 시선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교팀과 함께 고대 그리스의 아름다운 유적지를 둘러보다가 그리스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고대 건축물을 실제로

마주하니 서양 문명의 근원지로서 당시 그리스인들의 탁월함을 엿볼 수 있었지만, 이 또한 무너져버린 돌기둥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화려함을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그들의 신화와 신전, 그리고 '우상'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일찍이 복음이 들어온 곳임에도 이후 이슬람의 지배까지 받았습니다. 현재는 복음화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점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에 제가 직접 섰을 때 200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2024년의 내가 똑같이 전하러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복음'만이 무한하며 유일한 진리임을 깨닫고 뜨거운 감격에 젖어 들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집' 수련회에서 이슬람교도로 살아왔던 제 소중한 친구 Asal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과 이슬람교도 가정의 어린 소녀 Neda가 "Jesus is the Lord!"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며 한 줄기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를 진행한 수많은 난민 식구 또한 독일과 영국으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형제도 있

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역설적이고 극적으로 전개되는지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스 땅에서 한국인 선교사와 선교팀을 만나게 하셔서 난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독일과 영국으로 보내 그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미셔널신학번역총서 <선교적 성경 해석학>을 읽으며 ‘난민의 복음화’라는 비전과 ‘선교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24살의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앞길 막막한 대학생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제 인생 전체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진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이끌려 그분께 쓰임 받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나가며

중동난민선교를 준비하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

억에 남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 ‘난민’이라는 것입니다. 난민^{難民}은 한자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이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난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어려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 주시고 그 과정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중동난민선교 주일예배는 난민분들이 거주하는 난민촌 바로 옆 숲속에서 진행합니다. 건물도 전기도 화장실도 없는 그곳에서 돛자리를 펴놓고 다 함께 둘러앉아 찬양하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초대 교회를 연상케 하는 뜨거운 은혜의 현장임에도 그냥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페르시아어와 다리어와 한국어와 영어가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 확실했던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한국인이든 이란인이든 아프가니스탄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크리스천이든 이슬람교도든 ‘행복’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 큰 기쁨이 있을까요? 가장 자격 없

는 못한 제가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선교라는 시간 속에서 인생을 걸 비전을 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경험한 선교란 복음을 전하는 것





가족들과 동역은 청년 때와 다른 기쁨이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 주말에는 교회에 가고 방학에 아이들을 성경 학교에 보낸다고 이야기한다. 놀랍게도 나의 소소한 삶의 나눔을 듣고 교회 가고 싶다는 직장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을 만난다. 요즘 나는 이렇게 선교하며 산다. 남편과 세 자녀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매년 여름과 겨울에 영덕, 울진, 목포, 장흥으로 선교를 간다. 자녀들이 아빠의 전도하는 모습, 목장 집사님들이 길에서 사영리를 전하고 경로당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 성극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다.

말씀도 들리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기였다. 나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한 목사님께서 하루는 나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삼일교회는 젊은이가 많이 있는 교회니까 한 번 가 봐. 예배만 드리지 말고 그곳에서 하는 사역에 모두 참여 해 봐. 건강하게 신앙 생활하며 네가 성장하면 좋겠다.”

그 당시 나는 작은 동네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유년부, 중고등부와 대학부를 모두 거기에서 보냈다. 대학에 가서는 청년부에서 2부 예배 성가대와 5세 유치부 교사, 수련회 등으로 청년 시기를 보냈다. 봉사로 늘 바빴던 기억이 난다. 청년부 예배나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청년이기에 해야 하는 봉사 활동으로 주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일과 토요일이 늘 분주했다. 그런 나를 보시고 목사님이 안쓰러워하시며, 진심을 담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삼일교회에 왔다. 2006년 봄이었다.

4월 어느 주일, 어머니와 함께 숙대 강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 젊은이들로 가득 찬 숙대 강당, 불편한 의자와 시설임에도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엄마는 깜짝 놀라셨다. 그날 난 바로 '이삭'처럼 주워져 열정 넘치는 12기 미너 간사님께 연결됐다. 새벽 예배에 나와 조용히 혼자 기도드리기를 좋아한 나는 간사님 눈에 띄었고, 어느샌가 새벽예배 후 간사님과 함께 시골밥상에서 아침을 먹고 금요일에는 철야 예배에 오는 팀원이 됐다. 새로 온 청년이 간사님이 전화하지 않아도 알아서 새벽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니 간사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았다. 4월 말에 삼일교회에 왔는데 6월 특별 새벽기도회에 진출하고 7월 선교를 팀원들과 같이 준비했다. 삼일 교회에 빠르게 적응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고민할 틈 없이 새벽부터 바빴던 2006년을 보낸 것 같다.

우리 팀에서 7월 제주 선교 회의를 하면서 할 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는 무척 놀랐다. 예전에 내가 경험한 선

교와 무척 달랐기 때문이다. 2002년 나는 한 달쯤 해외로 선교 여행을 갔었다. 선교 사역은 주로 한인 교회 집사님들과 같이 러시아 보육원과 선교사님 댁에 방문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하거나, 러시아 보육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준비한 태권도 보여주기, 그리고 러시아 교회에 있는 러시아 현지인들에게 집사님들과 같이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일 같은, 주로 ‘봉사(傭)’를 했다. 그런데 삼일교회 선교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내 입으로 직접 말하다니… 게다가 그런 비법을 성경적으로 풀어주며 낯선 사람과 접점을 찾는 방법을 준비팀에서 저녁마다 특강(염색하는 법, 풍선 장식, 마을 잔치, 뜰 뜨는 방법, 어린이 사역을 찬양과 율동)을 열어서 가르쳐 주었다. 그 강사들이 다름 아닌 내 또래 청년이라는 점 또한 놀라웠으며, 이런 모든 과정이 신세계였다.

20년 넘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자랐는데 내 입으로 직접 하나님을 전하는 법을 훈련받고 사용한 적은 처음이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반 친구를 전도했었다. 그때 “지은아, 난 ○○교회에 다녀, 우리 교회에 와봐. 좋아!” 이런 문장으로 전했다면, 삼일교회에서 경험한 직접 하

나뉘어 전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 한 달 가까이 준비한 제주 선교는 몸살이 심하게 와서 결국 가지 못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팀에서 18기 리더 오빠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 또 거두는 사람도 있고, 그 모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쉴 때도 주신 거니까 선교 못 간다고 자책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쉬는 게 좋겠다.” 사실 나는 그전까지 ‘봉사’ 중심으로 교회 일을 했던 사람이라 내가 맡은 일, 계획된 선교(일)에 차질이 생기면 너무 힘들었다. 때를 기다리면서 선교를 돕는 일도 선교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이런 동역자가 많이 있는 점도 삼일 선교의 장점이다. 그후에 나는 건강을 회복하고 일정에 맞는 선교를 찾았다. 8월에 있는 일본선교를 등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일본을 향한 열정이나 일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내 일정에 맞추어 등록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팀의 연락을 기다렸다. 어떤 교회에 가는지, 같이 가는 선교 대원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강습회에서 팀장님을 만나고 일본 우에노시바 교회에서 갔을 때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깨달았다. 그 교회에는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본인 목사님 부부와 성도가 많았다. 우에노시바 선교팀에는 장년부 집사님

부터 나와 같은 대학부 청년, 회사 초년생 청년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팀의 장점은 밝은 영성이었다. 일본의 공원에서 우리팀은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반가워하셨다. “너희들에게 나오는 웃음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하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는 2006년이라 한류가 유행하지 않을 때였는데 우리 선교 대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기차역 앞에서 우리가 연주한 핸드벨 공연을 주목한 사람, 우리의 어설픈 일본어 사영리를 듣고 집에 초대해 준 길에서 만난 할머니도 있었다. 선교 마지막 날 코리안 파티에 그동안 길에서 만난 할머니와 학생들이 왔을 때는 깜짝 놀랐다. 어떤 봉사 활동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체험한 시간이었다. 그때 우에노시바 선교팀에서 만난 장년부 집사님, 대청부 오빠와 언니, 동생이 이제는 장년의 집사님이 되었다. 이분들은 여전히 매년 여름과 겨울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에노시바로 가신다.

2006년 우에노시바 교회에서 만난 일본인 청년 들은 결혼해서 그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다. 올해 봄에 그 부부가 자녀와 함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매년 삼일교회에서 일본으로 선교하러 오는데 어떤 곳인지

늘 궁금했다고 한다. 이번에 삼일 교회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부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국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이 있어서 놀랐고, 매년 우에노시바 교회로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다.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다고 했다. 2006년 삼일교회에 온 첫해부터 일본선교, 그리고 겨울에는 장흥, 여름에는 동해 태백 선교 수도권 선교 등 소속된 진에 따라 맡은 지역 선교에 참여했다. 나에게 선교는 복음을 듣고 말하는 시간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감사를 되새기는 시간이다.

2024년 현재 나는 여름과 겨울에 떠나는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2월과 8월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수도권 선교에 참여한다. 8년 넘게 한 교회를 섬기며 그 지역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이제는 자녀들과 남편이 같이 있다. 어린이 성경 학교를 하고 노방 전도를 하는데 가족들과 동역은 청년 때와 다른 기쁨이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 주말에는 교회에 가고 방학에 아이들을 성경 학교에 보낸다고 이야기한다. 놀랍게도 나의 소소한 삶의 나눔을 듣고 교회 가고 싶다는 직장 동료들과 주변 사

람들을 만난다. 요즘 나는 이렇게 선교하며 산다. 남편과 세 자녀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매년 여름과 겨울에 영덕, 울진, 목포, 장흥으로 선교를 간다. 자녀들이 아빠의 전도하는 모습, 목장 집사님들이 길에서 사영리를 전하고 경로당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 성극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고군분투하는 시간을, 아이들이 기다린다. 그 시간을 지나며 자녀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다음 선교도 기대가 된다.

선교의 유산





하나님은 제 인생 위기의 순간에 슈퍼맨 같은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선교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삶의 뿌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슬럼프와 절망에 빠졌던 저를 꺼내 주시려고 언어도 문화도 낯선 곳에 보내셨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매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어려움을 해결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가 한 뼘 더 성장해 있기도 했습니다.

‘지혜’, 제 이름에는 엄마의 마음과 기도가 담겨있습니다. 엄마는 태교로 잠언을 읽던 중 크게 감동했고 솔로몬, 다윗, 다니엘, 요셉 등… 성경 인물의 지혜를 첫아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한자로도 지혜가 두 번 반복되는 이름 덕분에 “너 참 똑똑하구나!”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성공을 꿈꾸며 서울로 올라온 25살의 여름, ‘똑똑한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으리란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 4남매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맏이로서 어려워진 가정 형편을 영웅처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 가족 수가 많아 시끌벅적 복잡한 집을 떠나

혼자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기도 했지요. 독립 이후 가장 좋았던 점은 생활과 신앙의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간섭과 잔소리 없이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결정이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깐의 행복이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경제적 지원도 없는 서울 생활은 어려운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직장 생활, 자취 생활, 사람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혼자 결정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소리치며 시작한 독립생활의 실패를 들리고 싶지 않아서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하지 못한 말도 많았습니다.

작은 자취방에 홀로 누워 많이 울었습니다. ‘언제 일이 잘 풀릴까?’, ‘나는 성공할 수 있거나 한 걸까?’, ‘무엇이 잘 못된 것일까?’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마주하니 두려움이 몸과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마음의 바닥은 생각보다 깊고, 어둡고 추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본성, 쓴 뿌리도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똥똥했던 나’의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지혜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치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슈퍼맨처럼 나타나 주시기를, 눈앞의 일들을 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장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벌을 받은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주일예배, 팀 모임, 저녁예배,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철야예배, 제자훈련, 제주선교, 통영선교, 농어촌선교까지...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눈에 띄어 점수를 따라 했거든요.

서른 살 여름, 회사 일정 때문에 팀과 함께 가던 제주 선교를 갈 수 없었습니다. 대만선교가 일정과 맞았지만, 마음에 브레이크가 한 번 걸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어도 잘하지 못하고 중국어는 더더욱 해본 적이 없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허나, 사실 저에게 해외선교 이미지란 일상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제3국으로 떠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최대한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팀의 리더가 “타이베이 삼일교회로 같이 가자” 제안해 주셨습니다. 팀의 동역자가 함께할 수 있고,

삼일교회에서 파송한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시고, 이름에도 삼일교회가 들어가니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다만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제가 대만 사람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행히도 입 대신 손으로 헌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교 포스터와 전단지, 스티커와 현수막, 심지어 간판까지...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저에겐 너무나 쉬웠지만, 봉사자 찾기가 만만치 않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 대만선교에서 태풍 탓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전단지가 예뻐 한국의 밤에 오게 되었다는 초청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밤 오프닝에서는 숨겨왔던 아주 작은 재능, 맥도날드 게임으로 에너지를 분출하며 대만선교에 녹아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려움은 잠시 잊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선교팀원들과 교제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수다쟁이인 제가 대만 사람 앞에선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언어의 장벽보다 은혜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타이베이 삼일교회의 성장에 놀라고, 선교에 임하는 대만 청년들에게 감탄하고, 선교팀원들의 간증에 은혜받고, 제 자신의 변화에 감사하며 대만선교에 해마다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타이베이 삼일교회 선교팀으로 12년을 함께 했습니다. 선교를 가든, 가지 못

하든 교회에 필요한 디자인을 도와드리며 쓰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대만 준비팀의 요청으로 선교 등록 포스터와 배너, 책자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직업적으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는데, 대만선교 덕분에 직업에 대한 감사까지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 위기의 순간에 슈퍼맨 같은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선교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삶의 뿌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슬럼프와 절망에 빠졌던 저를 꺼내 주시려고 언어도 문화도 낯선 곳에 보내셨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매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어려움을 해결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가 한 뼘 더 성장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 땅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저에게 인생 절친들과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특별히 타이베이 삼일교회 선교팀은 인생의 대소사를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쯤 제 이름의 의미를 다시 돌아봅니다. ‘지혜’의 진

짜 뜻은 뽕뽕해 보이는 이미지나 세상의 지식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나와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랐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던 것이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었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의 평안과 성공,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름의 진짜 가치를 선교지에서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해외선교를 멀리하려던 진짜 이유는 바로 가문에 있습니다. 저희 외가를 거슬러 올라가면 100여 년 전 죽음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건너온 선교사의 전도로 하나님을 영접한 증조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목숨을 내놓고 지켜 온 신앙을 따라 그의 아들 곧 우리 외할아버지는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교단에서 첫 번째로 파송되어 발길이 닿기 어려운 시골, 나환자들이 모인 곳, 분쟁이 있어 목사님들이 거절한 곳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5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습니다. 그런 외할아버지의 자녀들 또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 교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대인 우리 형제들도 어김없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목사의 사모가 되었고, 남동생은

장애인 복지사로 일하며 여전도사님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보고 배우며 자랐는데도 엉뚱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힘들지 않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었지요. 주를 향한 헌신의 결과는 희생과 가난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혜롭지 못했지요?

집안과 하나님에게서 열심히 도망쳐 올라온 서울에서 만난 삼일교회는 무슨 일인지 우리 가문과 닮아 있었습니다. 삼일교회는 농어촌 구석구석 작은 교회로 향합니다. 섬으로, 군대로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을 찾아갑니다. 판자촌, 노숙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울고 웃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피하려고만 했던 선교 훈련을 삼일교회에서 수년간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세계관을 배우며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저의 진정한 지혜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선교를 함께한 집사님의 주선으로 대만선교 전애교회 팀을 섬겨 온 삼일교회 청년을 만나 결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막혀 있었던 대만선교가 다시 열린 여름, 코로나 시기에 태

어난 아이와 함께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타이베이 삼일교회 13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감동으로 주제 찬양이 되었던 손경민의 <은혜>. 우리 아이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 없는 은혜~”의 가사를 대만 교회에서 부르며 감동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아이는 대만이 정말 좋은 곳이었다고, 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의 선교는 이렇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말입니다.

늘 두렵기만 했던 선교는 사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시선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문과 민족, 세계가 변화됩니다. 적어도 우리 가문이 5대에 걸쳐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선교사님들의 피를 기억하며,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먼저 주님을 만난 나라들은 복음을 따라 어려운 나라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삼일교회는 70년간 선교의 역사로 채워졌고, 선교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40대가 된 지금, 저는 삼일교회 덕분에 교회 신급이 높은(?) 동생들보다도 선교를 더 많이 다녀왔습니다. 서울을 올라오며 꿈꾼 성공과는 너무 다른 결과지만 왜인지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
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
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
데후서 1장 5절 말씀처럼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가 소중히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도록 힘써 가르치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선물 받은 이름의 뜻에 따라, 삼일교회에서 배우고 훈련
받은 대로 나의 일상과 일터, 이웃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나누고 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PART 4.

선교 제안

삼일교회 선교 3.0을 기대하며



조아론 목사



선교란 삼위 하나님 사랑의 무한한 확장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선교하는 근거이며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실마리다. 앞서 질문한 선교의 주체라는 물음의 해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즉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이신 '하나님의 선교'이다.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양식으로 파생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미션)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도 답해 보자. 하나님의 선교(사명, 임무, 목적)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 우주를 향한 삼위 하나님 사랑의 무한한 확장이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온 우주에 확장하게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보냄'이다.

나는 2008년 무렵 삼일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때 나는 20대 청년이었고, 교회 구성원은 대부분 청년이었다. 그때도 교인들은 선교에 열심히 동참해 직장이 있는 청년은 휴가를 내서 국내외로 선교를 떠났다.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도 청년을 지나는 즐거운 추억으로 이겨냈다. 우리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장년 성도들의 양보와 섬김이었다. 청년이 좋아하는 찬양과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어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권리를 양보했고,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방과 주차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용히 섬겼다. 이런 과정을 지나며 삼일교회는 청년들이 선교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웠다. 지금 선교의 틀도 그때 만들어졌다

고 볼 수 있다. 삼일교회 선교 역사를 볼 때, 이 시기를 선교 1.0으로 부를 수 있겠다. 담임목사의 임기를 기준으로 볼 때, 제4대 담임목사께서 시무하던 시기다.

2012년도에 제5대 담임목사로 송태근 목사님께서 취임하셨다. 이 시기부터를 선교 2.0으로 볼 수 있겠다. 송태근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취임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크기로 하는 사역을 경계하셨다. 교회가 과열, 과잉, 과장이라는 3과³를 건어야 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셨다. 이와 같은 목회 철학은 삼일교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선교에서도 교회 규모가 아니라 복음만으로 사역하는 태도와 철학을 공유하게 했다. 단지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 대원의 숫자나 많아지는 선교 지역이 열매가 아니다. 선교 활동만으로 선교하는 교회의 참모습을 알 수 없다. 그것은 선교의 한 양태로 드러날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삼일선교 2.0은 doing(하는 것)에 집중했던 선교의 초점을 Being(되는 것)으로 옮겼다고 볼 수 있다. Being에 담긴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재론적 선교’다.

존재론적 선교를 설명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미셔널 처치)’^{Missional Church}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

니다. 시대적 유행도 아니다. 선교적 교회에 담긴 함의는 성경이 처음부터 전제하고 지지하는 바다. 따라서 삼일 교회는 그동안 현장에서 세워 올린 경험적 측면에서 선교 위에 성경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단단하게 세우길 소망한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70년(이 새로운미래를 선교3.0이라고 부르겠다)은 경험과 신학적 기반이 합쳐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길 바란다.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려면 먼저 교회를 수식하는 ‘선교’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선교^{宣敎}의 한자 의미는 ‘가르치고 베푸다’는 뜻이다. 이는 영어 ‘미션’^{Mission}을 번역했다. 미션은 ‘사명, 임무, 목적’을 의미한다. 미션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 하나는 미션의 주체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미션의 내용이다. 즉 ‘누구의 선교이며, 이 선교의 내용은 무엇인가?’가 그 방향을 결정한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양식에서 나온다. 선교는 어떤 결핍을 채우고자 마련된 후속적 조치가 아니라—그것을 포함해서—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양식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4:8). 즉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신다. 삼위로 존재한다는 말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양식을 종합해 보자.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선교는 바로 반드시 그것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신다. 사랑은 그 속성상 점점 풍성하게 흘러넘친다. 사랑하면 인색하지 않고 더 나누게 되지 않는가?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흘러넘쳐서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안에서 선교의 정의는 비로소 세워진다. 여기에서 선교의 정의는 정립된다.

정리하면, 선교란 삼위 하나님 사랑의 무한한 확장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선교하는 근거이며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실마리다. 앞서 질문한 선교의 주체라는 물음의 해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즉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이신 ‘하나님의 선교’이다.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양식으로 파생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미션)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도 답해 보자. 하나님의 선교(사명, 임무, 목적)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 우주를 향한 삼위 하나님 사랑의 무한한 확장이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온 우주에 확장하게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보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넓혀나가려고 끊임 없이 누군가를 세상에 보내는 역사를 기록했다. 그 정점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장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구속하며, 새로이 창조한다. 죄로 파괴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오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삼위 하나님 사랑은 죄를 이기고 계속해서 온 우주를 덮고 뻗어나간다. 하나님 사랑의 실체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휴머니즘적인 사랑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들어 보여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확실하게 드러난 바로 그 사랑이다.

삼위 하나님은 ‘보냄’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장한다. 영어 미션^{Mission}의 라틴어 원어가 미시오^{Missio}인데, 바로 ‘보내

다'이다. 즉 선교는 '보내는 것'^{send}이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요. 17:18, 20:21 여기서 교회의 사명(미션)이 파생된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하여 그분이 보낸 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넓혀나가는 일이다. 선교는 사역이 아닌 하나님 사랑의 확장이 본질이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본성상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 교회(성도)는 삼위 하나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져야 한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나가기야 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상황^{context}을 중요하게 다룬다. 하나님이 각 교회 공동체를 특정한 현장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복음은 같으나 그것을 적용하는 상황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와 서구교회, 그리고 아프리카 교회는 각각 다른 맥락에 보냄을 받았다. 따라서 각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의 특정한 상황(지역, 문화,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삼일교회는 한국, 서울, 용산구 청과동으로 보냄 받았다. 삼일교회는 한국의 문화와 수도이자 천만 도시인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근방에는 서울역, 명동, 남산타워, 숙명여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교회 근처에는 노숙자, 유학생, 해외관광객들이 많

다. 삼일교회는 서울역에 있는 많은 노숙자를 성실하게 섬기고 있다. 그들이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고 다시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은 삼일교회만의 독특한 사랑의 적용이다.

나는 몇 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는, 유학생과 해외관광객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장이다. 삼일교회 주변에는 많은 외국인이 오간다. 서울역이나 숙대 지하철역에 배낭을 메고 길을 몰라서 머뭇거리는 외국인을 위해서 친절과 미소로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봉사를 할 수도 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방인을 향해서 친절과 환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도 하나님의 선교다. 교회가 전도대를 만들어서 전도지로 전하는 복음과 더불어 여행객을 위한 안내지를 들고 일정 시간 서울역 앞에서 환한 미소로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봉사는 어떨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펼쳐지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 중 하나는 아닐지.

또 한 가지는 주일 예배 생중계 영상으로 하는 선교다. 삼일교회는 매 주일 유튜브^{Youtube}로 주일예배를 생중계한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수천 명에 이른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후보 광고가 반복해서 송출한

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미리 접속한다. 그리고 예배를 기다리면서 반복되는 광고를 계속 볼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을 선교의 수단으로 삼는 방법이다. 그 시간에 주보 광고와 함께 ‘실종 아동 정보’를 송출한다고 상상해 보자. 많은 성도가 그 내용을 볼 것이다. 실종된 아이를 찾고자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아이라도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더욱 온전히 임할 것이다. 이처럼 보냄 받은 우리 교회가 삼일교회의 고유함을 토대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다.

결론적으로, 삼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 곳곳에 보내신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주위에 흘려보냄으로 선교에 동참한다. 서두에 언급한 ‘존재론적 선교’의 개념과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doing} 전에 서로 사랑함으로^{Being} 하나님의 선교(사명)에 동참할 수 있다. 요 13:34,35 그동안 삼일교회는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 활동을 뛰어넘어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다. 이제 새로운 70년을 바라보며, 선교 3.0을 준비하길 바란다. 그것은 선교적 교회로서 존재론적 선교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내진 모든 곳에서, 모든 일상 가

운데, 태양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복사해서 세상 속에 비추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론적 선교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는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를 뛰어넘는 개념이다. 그것은 우리가 보내진^{Missio}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Mission}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바라기는 삼일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교에 기쁘게 동참하는 주님의 충성된 교회로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한다.

God's Playlist: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태그하다





성육신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선교적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 오프닝 트랙

우리 삼일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은 삼일교회의 역사입니다. 70년 이전에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성도들은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시절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70년이라는 한 세대를 마름하면서, 이제 우리는 역사를 꺼내어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선교적 교회'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 본질은 일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직장, 학교, 가정, 이

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 고유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때로는 웅장하거나 잔잔하게, 때로는 즉흥적으로 연주하기도 하죠. 이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정직, 섬김, 이 모든 일상의 순간이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멜로디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교 플레이리스트에서 중요한 음표입니다.

| 장르의 경계를 넘는 하나님 선교

음악의 세계는 무한히 넓고 다양합니다. 클래식에서 재즈, 힙합에서 트로트까지, 각 장르는 고유한 특성과 매력을 지니죠. 하나님 선교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교'나 '제자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특정한 이미지나 방식만을 떠올립니다. 마치 클래식만이 진정한 음악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정의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다양성을 품는 제자가 된다는 말은,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이들을 인정하고 존

중함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선호하는 분들, 현대적인 찬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 조용한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 이 모든 방식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중합니다. 마치 다양한 악기가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유연성을 갖춘 제자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적응해 갑니다. 새로운 기술, 다양한 문화, 예상치 못한 돌발적 상황이 우리의 선교 무대입니다. 장르를 넘는 음악처럼, 선교도 기존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인 언어뿐 아니라 시대의 언어로, 전통적인 방식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약점 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한 연주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협화음 같은 실수와 한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플레이리스트에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을 더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다양한 선율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이 모든 소리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역동적인 선교적 제자로 가는 여정을 경험할 것입니다.

겸손한 어쿠스틱, 사랑의 화음

어쿠스틱 음향은 특별한 매력을 지닙니다. 화려한 전자 악기의 소리가 아닌, 악기 본연의 순수하고 솔직함이 청중의 마음을 깊이 울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교적 삶에서 '겸손한 어쿠스틱'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성육신적 태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왕의 권세가 아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셨죠. 우리의 성육신적 태도라 하면,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의 현실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말

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죠. 마치 정교한 어쿠스틱 기타가 섬세한 터치에 반응하듯,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육신적 겸손함은 결코 나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사랑의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었던듯, 우리의 겸손한 섬김도 주변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랑의 화음’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치 아카펠라 그룹이 각자의 부분을 충실하게 소리내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 우리도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사랑을 확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성육신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선교적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화려하고 요

란한 소리는 아닐지라도, 겸손하고 따뜻한 어쿠스틱 선율로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 작은 울림이 모여 거대한 사랑의 화음을 이루어 냅니다. 모두 이러한 성육신의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콘서트가 될 것입니다. 겸손한 어쿠스틱과 사랑의 화음으로 가득 찬,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 피날레

지난 70년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속에서 환희와 고난, 그리고 수많은 일상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바탕으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갑니다. 70주년을 맞은 삼일 교회. '연결'이라는 새로운 악장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이는 단순한 관계 맺기가 아닌,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제자로서 사명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세대 간 연결

◆ 세대 통합 예배

정기적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기도, 말씀 나눔, 코이노니아 등 예배의 모든 순서에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 3세대 가족 캠프

연 1회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캠프를 운영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합니다.

◆ 실버-주니어 협력 봉사단

노년층과 청소년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경험과 체력을 결합한 시너지로 효과적인 봉사를 실천하며 세대 간 협력을 경험합니다.

타문화와 연결

◆ 다문화 어린이 캠프

방학 기간을 이용해 다양한 국적의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캠프를 운영합니다.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우정을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국제 학생 환대 프로그램

지역 내 유학생들을 위한 환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홈스테이 기회 제공, 한국 문화 체험 활동, 명절 및 기념일 함께 보내기 등으로 타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족 같은 따뜻함을 전합니다.

◆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

교회 내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센터를 설립합니다.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법률 및 행정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소외된 이웃과 연결

◆ 함께 걷는 동행 프로젝트

주변의 소외된 이웃의 일상을 돕고, 따뜻한 관심을 전합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가정 지원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 멘토링’, ‘청소년 쉼터 운영’, ‘장기 입원 환자 방문 서비스’, ‘출소자 재활 프로그램’, ‘발달 장애인 직업 훈련센터’,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치매 환자 가족 지원 그룹’ 등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연결은 우리가 연주하는 하나님 사랑의 화음입니다. 실수도 하고 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 조차도 하나님은 놀라운 지휘 실력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이 연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필요에 반응하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70년, 아니 그 이상을 향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닐까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연주하며 세상과 연결되는 선교적 제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삼일교회를 넘어, 우리 지역을 넘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삼일교회 선교 이야기

세상과 복음을 잇다

초판 1쇄 인쇄 2024년 12월 01일

초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05일

지은이 이은영 은현재 양제현 김선민 오성광 김지산 김호영 강지혜 조아론 이광일

엮은이 예스삼일

편집 이유나 정재필 배세민

디자인 박세정

펴낸곳 (주)삼일출판

출판등록 2017년 5월 29일 제2017-000038호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4

전화 02-713-2660

팩스 02-3273-5297

www.samilchurch.com

© 삼일출판, 2024

ISBN 979-11-971088-9-1 03230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 무단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